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3월, 벨기에)**

2018.04.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3월 _주 벨기에 한국문화원 [배가브리엘]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브뤼셀 극장들의 협력, 서커스 축제 〈Festival UP!〉 약 열흘간 개최	3
2			브뤼셀의 대표적 무용예술기관 ‘브리지틴스’, 3월말까지 현대무용축제 계속 진행	4
3	문화 예술 디렉 토리	기관 및 단체	Trois C-L / 룩셈부르크 안무창작센터	6
4		공간	MIM(Musical Instruments Museum) / 악기박물관	7
5		축제 및 행사	Festival XS (Festival Extra Small)	8
6			Courtisane Festival / 코티잔 페스티벌	8
7		인물	Minhee Bervoet / 민희 베르보츠	9

□ 현지동향

1. 현지 동향 <1>

유형	축제/행사	장르	서커스/공연예술
관련링크	Http://www.upfestival.com		

브뤼셀 극장들의 협력, 서커스 축제 <Festival UP!> 약 열흘간 개최

벨기에는 연극과 무용, 음악뿐만 아니라 서커스와 인형극 등 소위 ‘서브컬처(Sub-culture)’로 분류될 만한 장르의 공연도 자주 이루어지는 편이다. 브뤼셀 시내에는 인형극 전용극장과 인형극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록 인근 네덜란드의 ‘로열 서커스 축제’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매년 서커스를 위한 축제도 개최된다. 특히 벨기에 플랑드르어권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 서커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현대무용의 성지라 불리는 벨기에의 특성을 반영한 융합장르적 서커스 공연이 왕왕 이루어진다. 매년 3월 동안 약 열흘에 걸쳐 진행되는 서커스 축제 <Festival UP!>은 컨템포러리 서커스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이다.

<UP!>은 짝수 해마다 개최되는 인터내셔널 서커스 비엔날레로, 브뤼셀의 13개 기관이 협력하여 120명 이상 아티스트들에게 자리를 마련한다. 평소에는 연극 위주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마르니 극장(Theatre Marni), 현대무용작품을 다수 상연하여 “무용전용극장”으로도 불리는 바리아 극장(Theatre Varia)과 현대무용단 ‘샤를루아 당스’가 운영하는 하피너리(La Raffinerie), 아동극 전문극장으로 유명한 브롱크스 극장(Bronks), 복합장르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140 (Le 140) 등이 참여한다. “서커스의 경계를 실험”하며 진화된 형태의 서커스를 소개하는 것이 축제의 주요 목표로서, 과거의 곡예 또는 기예에 가까운 서커스의 범주를 확장하여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결합하고자 한다.

<UP!>이 정의하는 서커스는 다양한 시청각적 장치를 실험하는 동시에 인간의 몸을 하나의 언어로 사용하는 예술로, 현대성과 실험성이 강한 종합예술로서 그 의미가 있다. 즉 열흘간 관객들에게 크고 작은 규모의 서커스를 다수 제공하는 <UP!>은 연극, 무용, 음악, 벌레스크와 순수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공연예술”로서의 서커스를 고찰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올해 <UP!>은 벨기에의 ‘나가 콜렉티브(NAGA Collective)’, 프랑스의 ‘프로젝토 프레시피시오(Proyecto Precipicio)’, 스페인의 ‘레안드리(Leandre)’ 등이 참여해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관객들을 만난다.

(사진1 FestivalUP 2018 / 사진2 FestivalUp 참여 Naga Collective)



1. 현지 동향 <2>			
유형	축제/행사	장르	현대무용/공연예술
관련링크	http://www.brusselsdance.eu/ http://www.brigitines.be/en/in-movement-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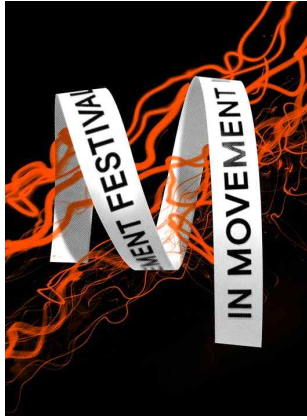
브뤼셀의 대표적 무용예술기관 ‘브리지틴스’, 3월말까지 현대무용축제 계속 진행

‘브리지틴스(Les Brigittines)’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예술기관 겸 극장으로, “현대무용(만)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명망이 높다. 현대무용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예술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아티스트의 상주 및 투어를 후원한다. 건물 곳곳에는 상연용 홀과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작업실도 다수 마련하여 새로운 작품의 제작과 상연을 돕는다. 벨기에 로컬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면, 현대무용 이외의 작품은 거의 상연하지 않는다 - 어쩌다 콘서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트너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정한다. 관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관은 철저하게 비예술적인 행사 - 회사 컨퍼런스, 네트워킹 파티 등에만 실시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브리지틴스는 브뤼셀의 관객들에게 “브리지틴스에 가면 다양한 현대무용공연을 볼 수 있다”는 호평과 공감대를 얻고 있다.

브리지틴스는 2018년 <브뤼셀 댄스(Brussels Dance!)> 축제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브뤼셀 댄스>는 매년 브뤼셀 시 정부와 로열 플레미시 극장, 국립극장, 바리아 극장, 140, 하피너리, 스카르베크 홀 등 다수 예술기관/극장이 함께 진행하는 현대무용축제다. 2월초부터 3월말까지 두 달 간 열리며, 참여 기관들은 새로 제작한 현대무용작품을 중심으로 일종의 프리미어 행사를 꾸리거나, 그해 상연 예정인 작품들 중 일부를 제시하는 등 특성과 기준에 맞는 큐레이션을 진행한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되, 하나의 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과 프로모션 및 “관객에게 현대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조직한다. 브리지틴스는 이런 중추 역할을 맡아 <브뤼셀 댄스>를 이끄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브리지틴스가 2012년부터 개최 중인 비엔날레 <인 무브먼트(In Movement)>도 2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열린다. 브리지틴스가 주최하는 축제로서는 3월의 <인 무브먼트>와 9월의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는데, 후자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초청 상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전자는 브뤼셀에 기반하여 제작된 작품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작품의 길이나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현대무용과 기타 예술과의 결합을 후원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브뤼셀”이라는 지역 또는 그 지역성이다. 플랑드르 문화와 왈로니 문화가 공존하는 브뤼셀의 지역성이 현대무용의 다양성에 일조한다고 보고, 여러 문화권의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인 무브먼트>에는 벨기에의 대표적 현대무용컴퍼니 중 하나인 담드픽(Dame de Pic)과 안무가 에리카 주에넬리(Erika Zueneli), 마리아 유지니아 로페즈(Maria Eugenia Lopez), 뫼 반데키부스(Wim Vandekeybus) 등이 참여한다. 실험성 강한 프로그램으로 <브뤼셀댄스>와 더불어 브리지틴스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축제로서, 벨기에 및 브뤼셀 각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로컬 아티스트들이 여러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1 In Movement 축제)



(사진2 Les Brigittines)

□ 문화예술 디렉토리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명	Trois C-L / 룩셈부르크 안무창작센터		
유형	연구기관	장르	무용/공연예술
운영주체	룩셈부르크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설립 ; 이후 Trois C-L A.S.B.L.(과거 'TDM Association')이 운영 중		
소재지	룩셈부르크	설립년도	1994년
기관현황	연습실, 상연 공간 등 보유 ; 기관 소속 아티스트 다수		
홈페이지	www.danse.lu		

기관 및 단체



(사진 : CLTROIS)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트로아 C-L(Trois C-L)’은 현대무용작품의 제작과 연구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룩셈부르크 내의 신진 아티스트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현대무용계 종사자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중 끊임없이 다양한 마스터클래스와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베네룩스 지역의 여러 안무가들을 교수로 포섭한다. 특히 매 분기마다 “3 du Trois” 행사를 열어 작품의 상연과 아티스트 간 네트워킹, 포럼, 워크숍 등을 진행함으로써 현대무용작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술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해 EU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Trois C-L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룩셈부르크 대학, 프랑스 CCN 안무센터 등 여러 예술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안무가가 베네룩스 지역을 포함해 룩셈부르크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연 기회를 제공하고 투어 기금을 지원하는 등, 전적으로 현대무용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의미가 크다.

* [Tip]

룩셈부르크의 대표적 무용기관 중 하나로, 매해 세계적 무용축제에 참여하며 소속 안무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벨기에 브뤼셀의 쿤스텐페스티벌, 독일 뒤셀도르프의 탄츠메세, 프랑스 리옹의 댄스 비엔날레 등 인근 지역 예술축제에 기관 단위로 참여하여 룩셈부르크 출신 안무가들을 후원한다. 또한 프랑스, 벨기에 소재 무용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교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룩셈부르크의 무용 수준을 제고하고자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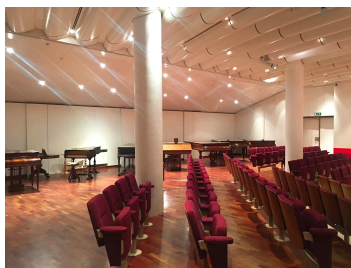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명	MIM (Musical Instruments Museum) / 악기박물관		
유형	박물관	장르	음악/공연예술
운영주체	벨기에 문화부(Minister of Culture) ; 왕립미술역사박물관(Royal museums of Art and History)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877년
기관현황	4개층 전시 공간 운영 및 1개 공연장 운영(200석 규모)		
홈페이지	www.mim.be		

공간

MIM (Musical Instruments Museum, 악기박물관)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전세계의 다양한 악기들을 전시 및 소장하고 있다. 1877년 브뤼셀 왕립음악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설립된 이후 1992년부터는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프로젝트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고음악과 현대음악, 팝음악과 전통음악을 포괄하며 거의 모든 장르와 국가의 악기를 다루고 있다.

약 7천 점에 달하는 악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장품도 많다. 스코틀랜드 백파이프나 티베트의 빠피리, 아프리카의 잠베 등 각국의 전통악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인기가 높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많이 찾는 편이며, 약 200석 규모의 앰피씨어터(Ampitheatre)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를 위한 악기 복원 워크샵, 작곡 워크샵 등도 다수 운영하는 바, 근처의 왕립미술관, 보자르(Bozar) 등과 함께 브뤼셀의 대표적 박물관으로 꼽힌다.



(사진 1-3 : MIM공연장 외관 및 내부)

* [TIP]

지하 1층과 1층, 2층, 4층에서는 상설전을 진행한다. 4층은 건반악기를, 2층은 19세기 이전의 관악기와 현악기를 전시하는 식이다. 여러 나라들의 악기를 전시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문화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17년 10월부터는 에스토니아 정부와 협력하여 에스토니아의 민속 악기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문화원과도 협력한 바 있다.

III.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Festival XS (Festival Extra Small)		
유형	축제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Theatre National		
개최시기	3월 중	시작년도	2011년
개최도시	브뤼셀, 벨기에		
참가규모	사흘간 약 20개 작품 상연 ; 14,000명 내외 관객 관람		
홈페이지	https://www.theatrenational.be/fr/group/361-festival-xs-2018		

<Festival XS>는 단어 그대로 “엄청나게 짧은(Extra short)” 공연예술작품을 위한 축제이다. 연극, 무용, 서커스, 인형극과 기타 퍼포먼스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으며, 단지 5~25분 정도의 상연 시간을 기준으로 컨템포러리 성향이 강한 작품을 선정해 상연한다. 2011년부터 벨기에 국립극장(Theatre National ; 왈로니권 국립극장 Theatre National de la Communaute francaise de Belgique)이 진행해 온 축제로, 매년 3월 사흘 동안 약 20개 정도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대부분 국립극장이 직·간접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며, 벨기에 로컬 또는 해외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하룻밤에 약 9개까지 공연이 진행되며, 평시에 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리허설용 스튜디오나 창고, 직원용 카페테리아, 연습실 등을 개방해 상연장소로 사용한다.

현대공연예술의 실험성을 장려하기 위한 축제로, 그 형태를 막론하고 짧은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공연 언어”를 제시하는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하는 것을 축제의 목표로 삼고 있다. 프랑스 아비뇽 축제, 헝가리 트라포(Trafo) 축제 등과 파트너 관계로, 벨기에 국내외의 아티스트들과 프로그래머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TIP]

2018년 <Festival XS>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상연작 중 서커스나 무용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22개 중 7개), 설치미술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품도 있다. 특히 서커스 비엔날레 <Festival UP!>과 협력하여 상연하는 벨기에-프랑스 협업작품 <오 렛 미(O let me)>,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밀라노 출신의 예술가 클라우디오 스텔라토와 국립극장이 함께 제작한 <2> 등이 복합장르 서커스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Courtisane Festival / 코티잔 페스티벌		
유형	축제	장르	영화/시각예술
운영주체	겐트 왕립미술원 (KASK)		
개최시기	3월중	시작년도	2002년
개최도시	겐트, 벨기에		
참가규모	- 약 5일에 걸쳐 진행 - ‘Artists in Focus’ 세션을 통해 2~3명 감독 집중 조망 - ‘Selection’ 세션을 통해 신진·중견감독 약 20명 작품 소개		
홈페이지	http://courtisane.be		

코티잔 페스티벌(Courtisane Festival)은 3월~4월 중 벨기에 겐트 지역에서 개최되는 영화 축제로, 겐트왕립미술원(KASK)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코티잔(Courtisane)’이 주최하는 행사이다. 다양한 스타일과 매체, 언어를 활용한 영화가 관객에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주된 목표다. 상업영화를 배제하는 대신 전적으로 실험성과 비판성, 모험성이 강한 독립영화를 선정한다. 즉 주최측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큐레이션을 진행한다. 영화 제작자, 배급사, 축제 프로그래머나 큐레이터, 감독과 배우,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서, 독립영화를 위한 축제의 장이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왕립미술관(KASK)뿐만 아니라 스피그스(Sphinx)와 미나드(Minard), STUK 등 겐트에 위치한 다수 예술기관이 협력해 영화를 상연한다. 플랑드르연합과 겐트 정부, 괴테 인스티튜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상연에 더불어 마스터클래스, 포럼 및 콘서트 등을 함께 진행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래밍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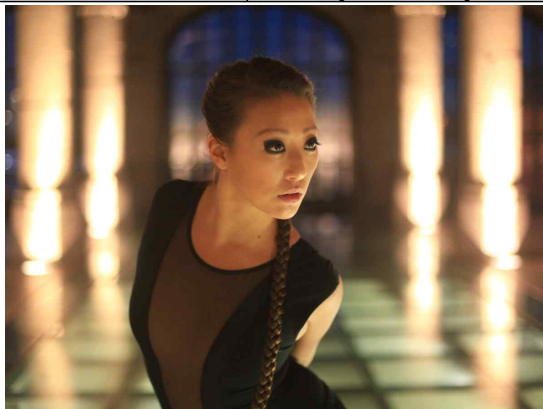
[TIP]

2018년 코티잔 페스티벌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2017년 피터 네슬레(독일)와 오가와 신스케(일본)를 집중 조망한 이후, 2018년 행사는 인도의 영화감독 마니 카울과 중국 영화감독 왕빙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외에도 뮤지션 'LSDXOXO'이 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

IV. 문화예술 디렉토리 <인물>

인물명	Minhee Bervoet / 민희 베르보츠	소속	HNDRD
장르	현대무용/공연예술	연락처	https://www.hndrd100.be/ cynthiascherkels@gmail.com
주요 이력	- 겐트 왕립학교 및 앤트워프 왕립음악원 졸업 - 2009 KBC 신진안무가상 수상 - 2014 Spitgart 댄스페스티벌 수상 - 네덜란드 FONTYA 무용축제 댄서/안무가 참여, 〈So you think you can dance〉텔레비전프로그램 댄서/심사위원 참여 등		

인물



(사진1 : HNDRD 안무가 Minhee Bervoet)



(사진2 : HNDRD 작품 One limited space)

민희 베르보츠는 입양 한인 안무가로서, 2009년 KBC 주최 신진안무가상을 수상한 후 2012년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하여 일반 대중에게까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2012년에는 VTM 방송사 주관 프로그램 〈Ultimate Dance Battle〉 준결승에 진출하였고, 이후 댄스 배틀 프로그램 〈So you think you can dance〉의 댄서 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주로 네덜란드와 겐트/앤트워프 등 플랑드르어권 벨기에를 중심으로 활동하나, 브뤼셀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다. 특히 2017년에는 현대무용컴퍼니 'HNDRD'를 창단하고 작품 '하나의 제한된 공간(One limited place)'를 초연, 이후 2018년 네덜란드 최대의 무용 축제인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Holland Dance Festival)'에서 작품을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작품 상연 및 한국 아티스트와의 교류 희망을 보인 바 있기도 하다.

* TIP : HNDRD 최초 제작작품인 '하나의 제한된 공간(One limited space)'은 각기 다른 배경의 남·녀 무용수들이 신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서 관객에게 무용수의 배경이나 사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이다. 2018년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에서 안은미 안무가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와 함께 많은 각광을 받았다.